

26 독재에 의한 질서 vs. 자유가 있는 무질서

• 토머스 홉스는 세계라는 구조물의 이상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전제하고 사고 실험을 하였다. 두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.

① 인간의 능력에 큰 차이는 없다.

② 인간이 원하는 것은 희소하고 유한하다.

홉스는 위 두 가지 명제에서 필연적으로 이끌어 나오는 사회의 상태가 바로 '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' 상태라고 보았다.

•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대한 권위체를 두고 그 권력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다. 그는 이 거대한 권위체를 거대함과 두려움에 빚대어 '리바이어던'이라고 명명했다.

• 홉스는 무조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. 인간과 사회의 성질에 관해 얼마간 가정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. 홉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'거대 권력에 지배된 질서 있는 사회'와 '자유롭지만 무질서한 사회' 중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바람직할까 하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. 물론 홉스의 답은 전자였다. 홉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고찰할 때는 홉스가 피로 피를 씻는 청교도 혁명이 절정이던 시대를 살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.